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미국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안미선은 오래 전 미국에서 실종된 아버지의 행적을 찾기 시작한다.

유랑 극단 시절부터 그녀 아버지의 레퍼토리는 ‘달나라로 간 별주부전’이었다. 그는 지구에서 토끼가 멸종한 21세기, 토끼 간을 구해 오라는 용왕의 특명으로 로켓을 타고 달까지 찾아간 별주부 역을 맡아서 시종일관 계수나무에 부딪치고, 먹다 버린 당근을 밟아 미끄러지고, 토끼의 피에 속아서 옷을 다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선보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코미디언 안복남은 정부 주도 대규모 문화 행사였던 ‘국풍81’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게 된다. 라디오 피디(PD)인 안미선은 영상 기록을 통해 실종된 아버지의 흔적을 꾸준히 찾아 나선다. ‘나’는 점자 도서관 이 관장에게 시디(CD)를 전해 달라는 그녀의 편지에 적힌 부탁에 따라 점자 도서관을 방문한다.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물을 마실 수 있죠. ‘거기 앞에 있잖아’라고 말하면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길을 건다가 주차한 차에 부딪치면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왼쪽은 무한대의 공간인데 그걸 아는 비장애인은 드물죠. 어쨌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결국 저는 1981년 여름까지 살았던 시각적 세계에서 한 번 죽은 뒤, 시각이 사라진 세계에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그건 마치 전생의 기억을 안고 사는 것과 비슷해요. 누군가 광화문 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광화문 거리는 1981년 여름까지의 광화문 거리죠. ㉔안구를 적출한 뒤에는 전에 한번 가 본 곳일수록 다시 가지 않으려는 성향이 생기는데, 그건 혹시라도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을 발견할까 두려워서죠. 그건 아마도 성장을 두려워하는 일과 비슷한 테죠. 완강하게 과거의 ㉕시각적 잔영만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통에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저는 잘 기억합니다. 예컨대 안 피디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피디의 아버지가 코미디언 안복남 씨라는 건 아시겠죠?”

“이번에 편지 받고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안 피디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군요.” 나는 좀 겸연쩍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전에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은 없었어요.”

“제가 남은 마지막 시각적 잔영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국풍 81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안복남 씨가 아직 유명할 때였습니다. 그 안복남 씨가 자기 아버지라고 안 피디가 말하기에 제가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안

피디는 침을 삼키며 머뭇거리다가 ‘가족을 버리고 양육집을 몰래 판 돈을 들고 애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쳐 버렸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런. 치료를 받아야 했을 텐데, 그렇게 애인과 도망칠 여력이 있었다니요. 연예인이니 돈도 많으셨을 텐데 빨리 치료받았더라면’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피디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㉖‘아버님은 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몰랐나요?’라고 말했더니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라고 안 피디가 되 물더군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분이 하신 연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코미디를 한다고 해도 앞이 어느 정도 보이는 비장애인은 그런 식으로 계수나무에 부딪치거나 무대에서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부딪치거나 떨어진다면 눈앞이 희뿌연 상태였다고 봐야겠죠.’ 그랬더니…….”

이 관장이 말을 멈췄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㉗안 피디에게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말했다시피 ㉘제 앞에서 누군가 얘기하다가 기척을 내지 않으면 마치 눈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줄 알았어요. ‘거기 있습니까?’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괜히 제 마음이 불안해져서 더듬더듬 손을 뻗었는데, 그랬더니 안 피디의 얼굴이 만져지더군요. 새벽, 이슬이 맺힌 풀잎을 만질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㉙젖은 목소리로 안 피디가 ‘예, 저 여기 계속 있어요’라고 말했고, ㉚그렇게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게 제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김연수, 「달로 간 코미디언」-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안복남과 안미선은 서로 가까운 부녀 지간이었다.
- ② 점자 도서관의 이 관장은 ‘나’에게 과거에 자신과 안복남이 나누었던 대화를 전달하고 있다.
- ③ 유랑 극단 시절부터 안복남이 주로 맡던 역할은 별주부였다.
- ④ ‘나’가 점자 도서관에 간 것은 연인 안미선의 부탁 때문이다.
- ⑤ 안미선은 ‘나’가 이 관장의 말을 전달해준 덕분에 안복남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9. ㉔~㉚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를 고려하면 이 관장은 ㉗로 인하여 마치 안미선이 사라진 듯이 느끼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안미선은 ㉘에 대해 알고 나서 충격에 빠졌음을, 그런 그녀가 느낀 슬픔은 ㉙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③ 이 관장은 앞이 안 보일지라도 ㉙를 통하여 안미선이 슬픔에 빠졌음을, ㉚를 통하여 안미선의 존재를 알 수 있다.
- ④ ㉗를 통해 이 관장의 과거에 대한 집착을, ㉗를 통해서 이 관장이 세상을 청각을 통해 인식함을 알 수 있다.
- ⑤ 이 관장은 ㉗로 인해 과거에 대해 많은 기억을 가졌음을, ㉔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성장을 이뤄냈음을 알 수 있다.

30.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풍81’ 당시 유명한 코미디언으로 활동했던 안복남은 이후 많은 방송에 출연함으로써 연예인으로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 ② 이 관장이 ‘1981년 여름’에 죽은 뒤 ‘전생의 기억을 안고 사는’ 채로 ‘다시 태어난 썸’이라 말한 것에서 ‘1981년 여름’에 이 관장이 자신의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됐음이 드러난다.
- ③ 이 관장이 안미선에게서 ‘이슬이 맺힌 풀잎’을 만질 때와 비슷한 느낌을 얻는 시점에, 안미선은 안복남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자신을 소홀히 대했음을 생각하며 슬퍼함이 드러난다.
- ④ ‘이번’은 ‘나’가 안미선의 아버지가 코미디언 안복남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시점으로, ‘나’의 안복남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알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 ⑤ 이 관장은 ‘1981년’의 ‘광화문 거리’를 회상하며 ‘1981년’ 이후에 ‘광화문 거리’를 다시 찾아가지 않는 것은 ‘1981년’의 ‘광화문 거리’에서 느꼈던 아름다움을 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이해와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선행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배려가 필요하다. 소통의 부재는 관계 형성에 있어 해를 끼친다. 「달로 간 코미디언」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안미선이 아버지의 행적을 되짚는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해 이해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또한, 이해와 소통은 세계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서도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안복남이 극단에서 연기를 할 때, 계수나무에 부딪치고, 당근을 밟아 미끄러지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의도적으로 행했던 데에서 그가 코미디언으로서 가진 열정을 알 수 있겠군.
- ② ‘나’가 안미선의 아버지가 코미디언 안복남임을 편지로 처음 알게 된 것은 ‘나’와 안미선이 연인이었을 시절에 ‘나’와 안미선 사이에 발생한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겠군.
- ③ ‘나’ 덕분에 이 관장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데에서 이 관장과 같은 사람에게 왼쪽이 무한대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달리 ‘나’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투철함을 알 수 있겠군.
- ④ 이 관장이 안미선에게 안복남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을 때 가족을 버리고 양옥집을 팔고 애인과 도망갔다고 대답하는 데에서, 안미선과 안복남 사이에 이해가 없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이 관장이 안복남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다고 안미선에게 말했을 때 안미선은 슬픔에 빠져 아무런 기척이 없었던 데에서 이 관장은 안미선의 존재를 눈치챌 수 없었음을, 안미선이 아버지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이별(人間離別) 만사중(萬事中)의 독수공방(獨守空房)\* 더욱 쉽다  
 상사불견(相思不見) 이내 진정(眞情) 그 뉘 알리  
 맺힌 설움 이렇저렇 헛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님 못 보니 가슴 답답  
 어린 양자(樣子)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듣고 지고 임의 소리 보고 지고 임의 얼굴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해 주소  
 전생차생(前生此生)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그린 상사(相思) 한테 만나 잊지 말자 백년기약(百年既約)  
 죽지 말고 한테 있어 이별 말자 처음 맹세(盟誓)  
 천금 주옥(千金珠玉) 귀 밖이고 세상 일불 관계하라  
 근원(根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뵈가 되어 높고 높도 다시 높고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 게 뉘 알리  
 화옹(化翁)조차 시샘하고 귀신(鬼神)조차 회짓난다  
 일조 낭군(一朝郎君)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頓絶)하니  
 오늘날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세월(無情歲月) 절로 간다

[A]

소년 청춘(少年青春) 다 보내고 옥빈홍안(玉鬢紅顏) 공노(空老)로다  
**오동 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밤은 어이 수이 가며  
**녹음방초(綠陰芳草)** 저문 날에 해는 어이 더디 가노  
 이내 상사(相思) 알으시면 님도 응당 느끼리라  
 독수공방(獨守空房) 홀로 앉아 반야 잔등(伴夜殘燈) 벗을 삼아  
 일촌간장(一寸肝腸) 석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가슴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이 바다** 되면 배를 타고 아니 가라  
 교태(嬌態) 겨워 웃던 웃음 생각하니 목이 멘다  
 지척(咫尺) 동방(洞房) 천리(千里)되어 바라보니 암암(暗暗)하도다  
**만첩 천희(萬妾千姬)** 그려 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랴  
 날개 돋친 학이 되면 날아가다 아니 가라  
 산읍 첩첩 고개 지고 물은 중중(重重) 흘러 근원 되니  
 천지 인간(天地人間) 이별 중에 날 같은 이 또 있는가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것다  
 초로(草露) 같은 이내 인생(人生) 무슨 죄로 못 죽는가  
 바람 부러 굶은비 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바장이며  
 임 계신 대 바라보니 이내 상사(相思) 허사(虛事)로다  
 공방 미인(空房美人) 독상사(獨相死)난 예로부터 있건마는  
 나 혼자 그리는가 임도 나를 그리는가  
 노류장화(路柳墻花)\*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날 사랑하던 끝에 남 사랑하지는가  
 산계야목(山鷄夜鶩)\* 길을 들어 놓을 줄을 모르는가  
 노류장화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가는 길이 자취 나면 오는 길이 무디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런가  
 아마도 옛 정이 있거든 다시 보게 삼기소서

[B]

-작자 미상, 「상사별곡」-

- \*독수공방: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
- \*노류장화: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으로, 기생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산계야목: 산 꿩과 들오리라는 뜻으로, 성질이 사납고 거칠어서 제 마음대로만 하며 다잡을 수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